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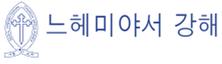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반대파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I)

(느헤미야 4:1~23)

이중윤 원로목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다. 그 반대로 인해 일이 실패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반대가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반대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가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격려를 받아야 한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미 성이 실제로 건축되고 있을 때 산발랏이 노하였다. 느헤미야가 실패했다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나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았을 것이다.

I. 사람들은 왜 남의 성공을 반대하는가

1.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거나 자기 권력 또는 특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악 된 세상의 한 단면이다. 호론 사람 산발랏(느 2:10)과 암몬 사람 도비야(느 2:19)는 느헤미야를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애굽, 바사, 아라비아, 소아시아로 가는 상업로로 이용되었다.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을 쌓게 되면 그들 상인들은 돌아가야 했다. 결국 그들로서는 이를 방해할 수 밖에 없었다.

2.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여 반대한다

동료(친구)가 잘하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열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인들 중에 자기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지성적이고, 혹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이유로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질투는 불협화음을 내고 심지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윤리적,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여 사람을 매장시킨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 데서 생긴 것이다. 산발랏과 도비야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다(느 2:10).

3. 자기와 다른 의식(순서)을 가졌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댄스파티를 하자고 한다면 이는 위협을 느끼게 한 것도 질투 때문도 아닌 신앙적 이유로 반대한다.

4. 배타적 감정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

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 이웃의 조력을 원치 않았다.

5. 그들이 반대한 이들의 동기를 의심하여 반대할 수도 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사 왕에게 대적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느 2:19)

6. 전통주의자(보수주의자)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과거를 사랑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이들이 문제다

7. 특히 사단이 반대한다

영적 사역일 경우에 이것은 더 심각하다. 사단은 교회 성장과 평안을 방해한다. 이 같은 반대가 있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요청된다.

“좋은 지도자는 두꺼운 피부를 가져야 한다”

- Charles R Swindoll, Hand Me Another Brick,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78), p69

II. 조소하면서 반대하는 경우

어떤 것을 반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웃는 것이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조소했다(4:1 - 3). 조소함으로 이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2. 3절)

이 같은 조롱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1. 그는 보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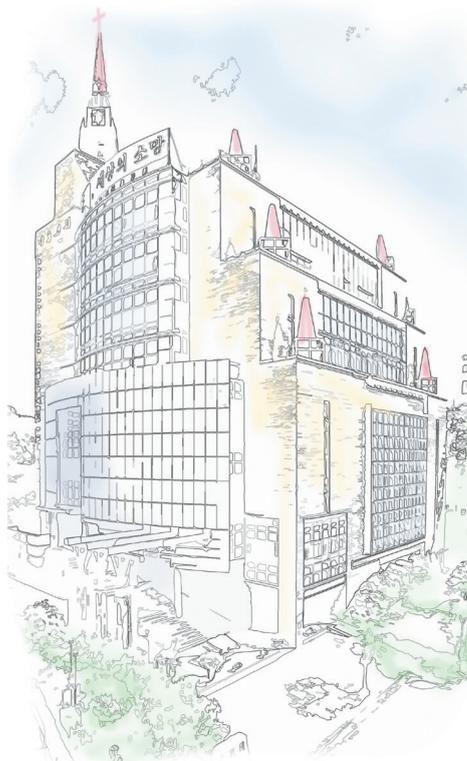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면 곧 반발한다. 그래서 자신이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너희도 형편없는 놀개들이라고 반격할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 경우 느헤미야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았을 것이다.

2. 그는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자신의 감정 폭발을 시키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 놓았다. 비록 업신여김을 받았지만(4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

3. 하나님이 주신 일을 묵묵히 계속했다(6절)

(다음주 계속)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되다!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20961 직무정지정지가처분

채 권 자 1. 노문환

2. 서문석

3. 이관규

채 무 자 박노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 문

1. 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저당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2019년 1월 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청구한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는 2018년 6월 14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8년 12월 18일(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의 「박노철 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판결과 함께 더 이상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지도
영아부	2월 16일(토)	서울교회	나는 믿습니다 - 사도신경 학교 (창1:1)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1월 26일(토)	서울교회	믿음으로 레벨업 (롬 1:17)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고등부	1월 25일(금) ~ 26일(토)	아가페 타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 2:5-8)	최승원 전도사
청년부	2월 8일(금) ~ 9일(토)	아가페 타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엡 1:23)	심우진 목사
사랑부	2월 17일(일)	서울교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 1:12)	심우진 목사

또한 목사·장로 안식년제 및 재신임 제도는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1998년 8월 15일 당회에서 안식년 규정을 마련한 다음 2000년 10월 8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안식년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이종운 원로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안식년규정을 준수하였던 점, 박노철 목사도 당회에서 자신도 안식년규정에 따라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교인들 앞에서 안식년 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설교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식년규정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교회정관에 해당하거나 교회정관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서울교회의 분쟁 경위(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임직과 관련한 분쟁의 내용, 서울교회 건물의 점거와 예배를 둘러싼 혼란 등),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본안소송의 경과, 박노철 목사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경우 서울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당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존 당회원의 반수도 초과하는 장로를 선출하고 불법용역까지 고용하여 교회를 점거한 사건들이 그의 직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류장렬·조순엽 박찬성·심명숙 황명하 구진영 김현영
신문식·전희정 이영조·이영자 김엄순 윤요섭·안재희
최원자 이주현·이주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선교회 · 전도회 연합일례회

1월 13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전도위원회(위원장 최광성 장로)는 2019년 첫 선교회 · 전도회 연합일례회를 1월 13일(주) 오후 3시 30분 101호에서 모인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

기록물 제출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기록한 모든 기록물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사진 등)을 작성했던 컴퓨터 파일을 2019년 1월말까지 최영철 집사(멀티미디어부 팀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2018 성경통독자 추가

· 1독 : 이관모 총 113명

연말정산 안내

현재 「박노철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교회 고유 번호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바쁘시더라도 1, 2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① 성명 ② 주민번호 ③ 전화번호 ④ 주소 ⑤ 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 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jtbc 보도에 관한 반박문

지난 9일 종편 jtbc 방송에서 서울교회 관련 재정비리 고발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본안소송 1, 2심 패소와 담임목사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지지성도들의 동요와 15일에 있을 총회 재재심 개시에 큰 심적 부담을 안고 마구잡이식 언론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다급한 박노철 목사는 그렇다 쳐도 팩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지 않고 일방적인 방송을 한 jtbc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교회를 언론의 먹잇감으로 가져다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 서울교회의 회계 시스템은 특정한이 예금을 절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교회 재정위원장이나 재정위원은 일반 회사의 재정담당자처럼 회계출납 업무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 통상 지출 과정에서 결재만 담당할 뿐 실제 지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국장과 경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교회는, 교회통장은 사무국장, 인감도장은 담임목사가, 비밀번호는 경리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삼원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장로가 교회예금 재산을 몰래 횡령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더구나 백 억이 훨씬 넘는 돈을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면 그 이득을 공모한 이들이 나누기라도 해야 했을 텐데 현재 전임 목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2. 박노철 목사측이 최초 문제 삼은 서울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은 명의만 교회일 뿐 1995년경부터 1997년까지 대치동 부지구입대금으로 교회에 빌려준 70억여 원을 상환 받은 후 다시 건축대금 등으로 빌려주기 위해 편의상 교회 명의로 예치하였던 차명통장입니다. 차명통장이 밝혀지자 본래 부지구입대금으로 빌려 준 70억여 원도 교회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설립 직후로 1년 예산이 20억원 내외에 불과하였는데 그렇다면 수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모은 교회현금을 혼자 몰래 횡령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3. 박노철 목사 측은 자신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 안식년제 규정 준수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교회재정에 관하여 아무런 의혹 제기조차 없었고, 오히려 오정수 장로 등 몇몇 장로들의 지원 하에 수억원 대 강남 대치동 소재 빌라에 고급승용차까지 운행하면서 역대연봉까지 받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그때서야 자신이 재정비리를 밝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자 오정수 장로가 주동이 되어 자신을 내쫓아 내기 위해 교회안식년규정을 악용하는 것처럼 계속 거짓 호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지위보전과 연장을 위한 방패막이 고발에 불과합니다.

4. 심지어 오정수 장로 자녀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교회 파이프오르간 설치대금도 교회재산을 사용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자녀 주택 마련건은 자녀가 거주하던 전세집이 소유자의 사정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가 그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올려 겨자 먹기로 교회에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은 돈 일부로 납입한 것이고, 또 교회 파이프오르간 대금 헌납건도 교회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 헌당식을 앞두고 이 역시 오정수 장로가 헌금하기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완납 정리를 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헌당을 할 수 있게 처리한 것인데도 앞 뒤 설명은 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오정수 장로를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담당 수사관의 요청에 언제나 성실하게 협조하여 수사에 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앞서와 같은 쟁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박노철 목사 측의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에 대한 확인에 주력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서 만일 수사가 더디다는 것을 타한다면 오랜 수사기간 동안에 온갖 거짓 선동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오정수 장로가 더 시급할 것인데도 담당수사관의 수사의견을 존중하여 자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고발한 재정비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또다시 고발한 내용도 수사 중입니다.

6. 종편방송에서는 수 백개의 차명통장만 언급할 뿐 횡령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횡령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교회명의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고만 하면서 그 교회계좌 명의의 돈이 교회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통장을 통해 교회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는 행여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후폭풍을 대비하여 빠져나가 위한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교회재산을 빼돌리려 하였다면 금방 들통 날 교회 명의가 아니라 아무도 모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또 4백여 개라는 통장의 숫자도 교회 사무국에서 공식관리 하는 일반 경상통장 이외의 각 교회학교와 찬양대, 선교회, 전도회 등 수십여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교회 명의로 새로 발급받은 통장들도 다 차명통장으로 분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횡령을 위한 것이었으면 폐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통장들이 고스란히 9층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7.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4번 바뀐 것은 논현동에서 반포로, 반포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하며 새로 발급받은 것이며 필그림출판사는 책 판매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사업자등록증은 김치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아랍권 목회자를 초청할 수 없어서 이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발급받았고 후에 핸드벨도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수입했으며 반포동 예배당 임대차 계약 시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서기록이 지금 9층에 있는 관계로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가 힘든 것을 안타깝게 생

각하면서 곧 서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성도님들께 보다 더 정확한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정비리와 하등 상관도 없는 사업자등록증이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모 종편방송의 서울교회 관련 보도로 오히려 박노철 목사의 실체가 날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의 목사담지 못한 언론플레이가 오히려 자신의 민낯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박노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알리는 계시 글 조회 수가 5일 간 1,200여건에서 위 종편방송의 보도 이후 불과 세 시간여 만에 3,497건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위 서울교회 보도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실체를 드러내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jtbc는 불법을 고발하는 목사가 왜 용역을 동원하여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최근 세상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교회에 대한 불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사회고발을 하여야 할 정문이라면 과연 어떤 목사이기에 대다수 교인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차명통장이 목사의 목인 아래 개설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교회 돈 이어야 문제가 되는 것인데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면서 기사는 갑자기 5·18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설교를 언제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편향되고, 무책임한 뉴스보도를 접하면서 세상에서 회자되는 가짜 뉴스의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황당함 뿐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마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강단에서 내려오더라도 재정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본당을 사수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반대 측에서 본당을 차지하면 마음대로 공동의회를 하여 총유재산에 대한 비리를 덮어주는 결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재정비리 건은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의회는 꼭 본당에서만 하여야 유효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교회 사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교회 사태는 박노철 목사의 리더십 부재와 자질 부족으로 촉발되었고, 안식년규정을 어기고 이 규정을 불법으로 몰아가므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재정비리는 박노철 목사가 마지막까지 버티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두 번에 걸친 직무권한 부존재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그가 전혀 있지도 않은 재정비리 의혹을 계속 악용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겸손히 자리에서 내려와 갈라지고 찢어진 교회를 살리고 통합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박노철 목사
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어제 토요일(1월 12일) 0시
부로 송달 간주되어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
(담임)목사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당회가 주관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일체의
예배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1
월 12일 0시 이후 서울교회는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당회원들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
에 따라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준비
하면서 임시당회장 파송에 앞서 헌법시행규정 제
16조의 7 제2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청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
까지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4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을 통해 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리당회장으로 청빙된 이종윤 목사는 1
월 16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당회장 결원에 따른 후
속조치를 위한 임시당회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제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원 일동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양행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
기로 함

계약금: 홍성주 원정은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홍성주 원정은 1994년 1월 13일 지불하고
잔금: 홍성주 원정은 1994년 1월 20일 중개의 임의화
에 지불하기로 함

제3 조 부동산의 명도는 1994년 1월 13일 명도하기로 함
제4 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날로부터 개월로 정함
제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계속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합
치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기로 함
제6 조 중개료는 양방에서 계약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1/2씩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제7 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 조 본 계약서 부분을 반환받아서 제출함에 있어 계약 양방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3통씩 갖기로 함

확정일자제 6806 호

임대인: 홍성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배영수)

임차인: 홍성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배영수)

1994년 반포동 교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분류기준 및
수신 오정수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 형제27216호
② 고소인 성명: 홍성주 외 6명
③ 성명: 오정수
④ 주민등록번호: [redacted]
⑤ 죄명: 가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⑥ 처분점사: [redacted]
⑦ 처분년월일: 2017. 12. 7.
⑧ 처분요지: 가혐의없음(중기불충분)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2017년 12월 7일에 나온 오정수 장로 무혐의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분류기준 및
수신 오정수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 형제49458호
② 고소인 성명: 홍성주 외 6명
③ 성명: 오정수
④ 주민등록번호: [redacted]
⑤ 죄명: 별지 참조
⑥ 처분점사: [redacted]
⑦ 처분년월일: 2017. 2. 16.
⑧ 처분요지: 별지 참조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2017년 2월 16일에 나온 오정수 장로 무혐의 판결문

제26형사부
2018-422-991-147
서울고등법원

제 26 형 사 부
정 본 업 니 다
2018. 6. 2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배영수

결 정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 피의자를 특정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
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중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신청인들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을 하
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
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5.

2018년 6월 25일 오정수 은퇴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가법 상의
배임 고소건 관련 재정신청사건(2018초재991) 기각 결정문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 비전2020 운동 후원 농어촌100교회 후원 후원자 명단

비전2020 운동 후원자

이종윤(홍순복)(2) 김애리(1) 이강진,이신재(10) 조순엽(1) 유근
중(1) 김명식(1) 김동진(박진주)(2) 백훈(1) 송인권(1) 양옥자(1)
이순례(1) 최임수(2) 김광민(박민숙)(1) 김광태(1) 안선광(고영
숙)(2) 최원자(1) 김승목(전미경)(2) 김재용,김재령(2) 김혜연(박
은영)(1) 문승순(1) 유영경(1) 유충기(1) 이승래(1) 이화순(1) 하
인선(남태순)(2) 홍해란(3) 황병석(6) 남영주(1) 유행석(제오복)
(2) 손태현(2) 김경숙(1) 김명화(1) 김준목(5) 오정수(이영희)(5)
원용규(박이선)(1) 윤봉준(1) 이강전(양길순)(2) 이남성(1) 이영
조(이영자)(2) 이주현(이주영)(1) 전용순(1) 지성철(3) 최봉애
(1) 한명주(1) 한상준(2) 김경희(1) 박광훈(이진순)(5) 조정욱(1)
진돈(1) 홍창훈(1) 김명자(1) 김양숙(1) 서명철(2) 송지윤(1) 안
인호(이명선)(2) 안홍희(전화진)(2) 이옥희(이흥기,이승준)(1) 정
미자(2) 조원영(2) 김성준(2) 서상근(1) 오광환(1) 유외숙(1) 임
상현(5) 장윤기(노애리)(1) 최광성(6) 최지욱(6) 박동식(유하영)
(1) 서은석(김미성)(1) 오만옥(박미영)(1) 장창수(1) 전성희(1)
최원석(박길희)(1) 김광래(2) 박정자(2) 안선희(1) 전영돈(1) 차
영도(1) 노재현(3) 정복순(1) 최규초(1)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이종윤(홍순복)(1) 김애리(1/2) 김동진(박진주)(1/2) 송인권
(1/2) 김광민(박민숙)(1) 안선광(고영숙)(1/2) 최원자(1/2)
김혜연(박은영)(1) 하인선(남태순)(1) 황병석(1/2) 남영주(1/2)
유은경(1/2) 김준목(1) 오정수(이영희)(1) 이영조(이영자)(1) 지
성철(1/2) 한상준(1/2) 서명철(1) 신아령(1/2) 안홍희(전화진)
(1) 한대석(1/2) 김성준(1) 임상현(1) 장윤기(노애리)(1) 최광성

(1/2) 최지욱(1/2) 김동준(이신혜)(1) 장창수(박해정)(1/2) 최원
석(박길희)(1/2) 김경열(1/2) 박정자(1) 이상섭(1/2) 전영돈(1)
차영도(1/2) 전광영(김인숙)(1) 노재현(1)

한가정 한선교 후원자

이종윤(홍순복)(1) 이강진(이신영)(1) 김애리(1/2) 감우균(김연
화)(1) 이준호(이은희)(7)(1) 송인권(1) 이순례(1) 김동진(박진
주)(1/2) 양옥자(김민우)(1) 조상환(전광환)(1) 조재민(조재석)
(1/2) 김광민(박민숙)(1) 안선광(고영숙)(1/2) 최원자(1) 박진형
(양도현)(1/2) 하인선(남태순)(1) 홍해란(1/2) 김혜연(박은영)
(1) 김승목(전미경)(1/2) 김재용(김재령)(1/2) 류충기
(김복희)(1/2) 문승순(1/2) 서영석(1/2) 황병석(1/2) 유행석(제
오복)(1) 유은경(1/2) 오정수(이영희)(1) 한상준(1/2) 원용규(박
이선)(1) 지성철(1/2) 남성(최영란)(1) 이강전(양길순)(1) 이시연
(이시우)(청1) 임종현(1) 박광훈(이진순)(1) 서명철(1) 안인호(이
명선)(1) 박창호(성민정)(1) 이옥희(이흥기 이승준)(1) 안홍희(전
화진)(1) 한대석(1/2) 우정서(청1) 우정영(청1) 우정근(청1) 장
석남(강남희)(1) 장하람(청1) 장하늘(청1) 신아령(1/2) 조건우
(청1) 조연우(청1) 임상현(서희숙)(1) 오광환(이안순)(1) 최광성
(1/2) 최지욱(1/2) 장해윤(청1) 장해라(청1) 전훈덕(1) 전민(청1)
김성주(한주희)(1) 김연우(청1) 김서연(청1) 최종근(1/2) 오만옥
(박미영)(3) 김지석(청1) 김지호(청1) 김지환(청1) 김예준(청1)
최원석(박길희)(1/2) 김창수(박해정)(1/2) 서은석(김미성)(1) 원
원현(전성희)(1) 김희열(유승기)(1) 최근보(김은희)(1) 박동식
(유하영)(1) 주화인(1) 김경열(1/2) 이상섭(1) 박정자(1) 전광영
(김인숙)(1) 김준목(1) (다음주 계속)

2019년을 이끌 일꾼들에게 듣는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예완식 집사
(스데반회 회장)

2019년도는 우리 서울교회에 있어 교회 분란이후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길목에서 스테반의 역할은 당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드리고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며 교회의 중직자로서 각 부서와 기관과 교회학교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스테반회원들의 열렬한 기도와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만이 스테반회가 활성화됨은 물론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길임을 알아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모임과 교제의 시간에 스테반회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테반회원들은 교회에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스테반회원들께서 달려와 주셔서 온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강단을 지키고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교회를 지키고자, 몸으로 막아셨습니다.

1년내내 교회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여기서 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어 온 몸으로 막아왔습니다.

용역강패를 동원해 우리장을 깨고 교회를 불법점거를 할 때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했으며 조를 짜서 밤새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회학교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는 날까지, 하나님께 평화롭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행동하는 스테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당회를 도와 최일선에서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 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개혁되어 가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이은희 권사
(살롬권사회 회장)

만 70세 이상의 은퇴권사님의 모임인 살롬권사회의 목적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에 전무하며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림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올해의 서울교회의 표어 또한 “거룩한 교회,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되기 위해 살롬권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부흥을 통해 거룩한 모범적 교회로 회

복하기 위해 어떤 작은 벽돌 하나를 쌓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벽돌 하나를 올리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묻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쇠파이프에 찢기고 할린 상처를 안고 시련과 역경,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가득찬 거룩한

교회에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는 살롬권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 또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두 손 모으기를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위로와 격려, 겸손과 배려 가운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살롬권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따뜻한 돌이 되어



허숙 권사
(권사회 회장)

권사회장으로 임명을 받고 친구 권사로 부터 받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금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돌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슬플 때도, 맘에 낙심이 될 때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늘 따뜻한 돌이 되어 고난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따뜻한 돌이서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서울교회의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새롭게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였던 것처럼 올해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며 변화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각 기관과 부서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권사회는 여전히 기

도와 섬김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권사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병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살피겠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온 맘과 몸을 던지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여중들이 되겠습니다.



편지왔어요

서울교회의 파송으로 시작 된 체코 일본어 사역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손신일 · 민매라 선교사는 2008년 11월의 파송식 후 12월에 체코 프라하 꼬빌리쉬교회 일본어예배 담당목사로 부임한 지 만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2월 9일에 일본어예배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프라하 꼬빌리쉬교회는 체코 형제복음교단 소속의 교회로, 주일마다 체코어, 한국어, 일본어예배를 드리면서 다민족신앙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한 일본어예배는, 체코에서 사는 일본인들(주로 주재원 가족, 유학생, 국제결혼한 여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예배 참석자의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체코 안에 일본인 사회가 꾸준히 이어지는 한 일본어예배의 사명도 계속될 것입니다.

체코의 개신교 신자는 체코 사회에서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만, 한국과 일본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써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어예배 공동체도 교회가 주도하는 여러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체코 선교에 이바지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손신일 선교사는 체코 성도들과의 연합예배에서 말씀 봉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의 일본어 교회들과 교류하면서 유럽 안에서의 일본인 선교활동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체코에 와서 깨닫게 된 일 중의 하나는 언어가 안 통해도 음악이 사람을 이어주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찬양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민매라 선교사는 일본인 어머니 합창단인 그레이스싱어즈팀을 지도하면서 선교활동을 계속 해 왔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체코가 음악이 넘치는 나라인 것이 저희 사역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선교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의 저희 일본어 사역은 서울교회의 선교사 파송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유럽의 선교에 대한, 중앙유럽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체코에 대한 관심이 크셨던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체코에서의 일본인 선교라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저희의 사역을 이해해 주셨던 일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10년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코에 첫 발을 디딜 때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던 두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고 성장한 청년이 된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년 전 서울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되새기면서 이 곳에서의 사역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해결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송 10주년을 기해서 이 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체코 프라하 꼬빌리쉬교회 일본어공동체
손신일 · 민매라 드림

등정

- 금주의 식사 : 송화버섯밥, 우영조림
김영호 · 서향정 선교사 가정
김원중 집사 이갑연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우영제공 : 강명신권사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 56:10)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14일	월	창 24-25		창 42-46	
1월15일	화	창 26-27		창 47-50	
1월16일	수	창 28-30		출 1-9	
1월17일	목	창 31-32		출 10-14	
1월18일	금	창 33-35		출 15:1-21:32	
1월19일	토	창 36-37		출 21:33-26:37	
1월20일	주일	창 38:1-41:36		출 27-32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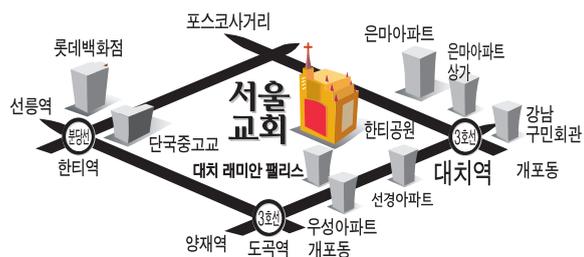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농어촌100교회 후원, 비전2020운동 후원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3.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